Check for updates

JFMSE, 38(5), pp. 1077~1086, 2026.
수산해양교육연구, 제38권 제5호, 통권143호, 2026.
www.ksfme.or.kr
https://doi.org/10.13000/JFMSE.2026.10.38.5.1077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은경 · 최현규 · 이태호†
국립부경대학교(학생 · †교수)

Parental Empathic Attitude and Self-Esteem among Upper Elementar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Eun Gyeong SHIN · Hyeon Kyoo CHOI · Tae Ho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student ·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ic attitude and self-esteem among 166 upper-elementary students (4th to 6th grades). Path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vealed that parental empathic attitude positively affected emotion regulation ability (β=.565, p<.001). Emotion regulation ability also exert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elf-esteem (β=.759, p<.001). Furthermore, parental empathic attitude directly impacted self-esteem (β=.211, p=.013). Bootstrapping analysis (5,000 samples) confirmed that emotion regulation abilit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β=.429, 95% BC CI [.318, .643], p=.006), functioning as a partial mediator. Notably, the indirect effect (β=.429) was larger than the direct effect (β=.211), with the model accounting for 80.2% of the total variance in self-esteem (R2=.802). Despite limitations regarding sample generalizability and cross-sectional design,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tegrative support that combines parental empathic attitude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o enhance children's self-esteem.

Key words : Parental empathic attitude, Emotion regulation ability, Self-esteem, Upper elementary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 서 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학업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서적·사회적 적응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Yoo, 2017; Zimmermann, 2004).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된다(Rosenberg, 1965; Orth and Robins, 2014). 자아존중감은 문제 해결력과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며(D'Zurilla et al., 2002),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ruklu, 2015). 또한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와 같은 발달적 변인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ang, 2023), 대인관계와 학교 적응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Yoo, 2017).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학교 부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974, leeth@pknu.ac.kr
※ 본 논문은 2026년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적응, 또래 갈등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Rosenberg, 1965),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Orth and Robins, 2014).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의 공감능력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Kim and Lee, 2015),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 관련 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and Jeon, 2020).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자기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이후의 진로계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 결과도 보고되어(Choi and Won, 2026), 부모의 공감적·정서적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자기이해와 적응적 발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환경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직접효과로 설명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적응적 행동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Gross, 1998). 정서조절능력은 아동기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가족 구성원은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orris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공감과 정서조절능력,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일부 검증되어 왔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으며(Park and Kim, 2012),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Lee and Jeon, 2020).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정서조절 관련 변인은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자아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o and Lee, 2010).

또한 정서조절능력은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래 관계와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immermann, 2004).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이 자기개념을 구체화하고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전환기일 뿐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또래 관계와 학교 환경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과도기에 위치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 및 자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세 변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아동의 건강한 정서발달과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PKNU IRB 2026-07-00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학교 관계자, 보호자 및 연구대상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및 비밀보장, 자발적 참여와 중도 철회 가능성을 안내하였다. 이후 보호자 동의와 아동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16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 Gender and Grade Distribution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92	55.4
	Female	74	44.6
Grade	4th Grade	45	27.1
	5th Grade	72	43.4
	6th Grade	49	29.5
Total		166	100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 92명(55.4%), 여학생 74명(44.6%)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45명(27.1%), 5학년 72명(43.4%), 6학년 49명(29.5%)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문항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정서조절능력 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척도는 아동의 생활 맥락과 밀접한 사회적, 가정적, 학업적 자아존중감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 척도의 경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표현이나 중복적 의미를 검토한 후,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부모의 공감적 반응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Parental Empathic Attitude, PEA)를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 SE)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서조절능력(Emotion Regulation Ability, ERA)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한다(Davis, 1980). 이는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는 정서지각,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점수용, 그리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구성된다(Cho, 2010).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하는“부모의 공감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기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는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측정은 Cho(2010)의 부모 공감 척도를 바탕으로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0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서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Gross, 1998). 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억제가 아닌, 긍정적 정서 유지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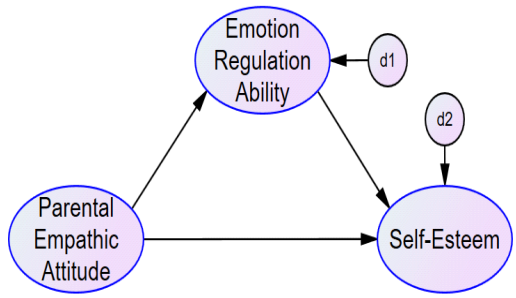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을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측정은 Shields and Cicchetti (1998)의 정서조절 체크리스트(ERC)를 기반으로 Kim and Kim(2011)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수준, 행동적 수준, 체험적 수준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이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핵심 심리 변인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측정은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Choi and Jeon(1993)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사회적, 가정적, 학업적 자아존중감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59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정서조절능력을 통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7.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Hu and Bentler, 1999).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3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잠재변인의 이론적 하위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하위요인 평균값을 관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하위요인 기반 parceling은 측정오차를 줄이고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Little et al., 2002; Matsunaga, 2008), 국내 종단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바 있다(Choi et al., 2025). 이에 따라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요인 평균값을 관측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오차를 고려한 잠재변인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Kline, 2015),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5,000회)을 실시하였으며, 95% BC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과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변인의 평균은 3.45 ~ 4.15 범위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공감적 정서반응(Emp)이 가장 높은 평균(M=4.15)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Fam)의 평균(M=4.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왜도(skewness)는 -.98 ~ -.13, 첨도(kurtosis)는 -.31 ~ .70 범위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4 이하일 경우 정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1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지각(Emo), 관점수용(Per), 공감적 정서반응(Emp)은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공감적 정서반응은 가정적 자아존중감(Fam)($r=.518$, $p<.01$)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Soc)($r=.454$, $p<.01$)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1	2	3	4	5	6	7	8	9	M	S.D.	Skew.	Kurt.
Emo	--									3.85	0.79	-0.46	-0.11
Per	.579**	--								4.03	0.85	-0.80	0.28
Emp	.701**	.742**	--							4.15	0.80	-0.98	0.70
Cog	.244**	.202**	.225**	--						3.57	0.71	-0.42	0.28
Beh	.406**	.400**	.401**	.446**	--					3.74	0.71	-0.29	-0.06
Exp	.340**	.374**	.388**	.515**	.505**	--				3.76	0.76	-0.40	-0.02
Soc	.455**	.414**	.454**	.569**	.528**	.542**	--			3.45	0.65	-0.13	0.44
Fam	.582**	.430**	.518**	.403**	.488**	.569**	.711**	--		4.07	0.75	-0.67	-0.31
Aca	.397**	.406**	.420**	.371**	.516**	.548**	.690**	.629**	--	3.46	0.75	-0.17	-0.27

** $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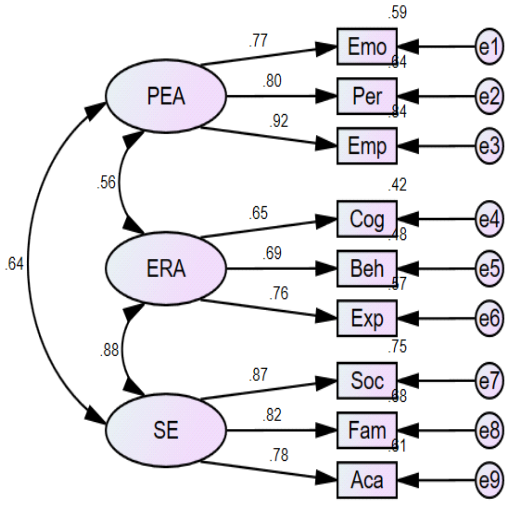
<Table 3> Goodness-of-Fit Indices for the Measurement Model

	$\chi^2(df)$	χ^2/df	CFI	TLI	RMSEA (90% CI)	SRMR
Research Model	53.106(24)	2.213	.963	.945	.086 (.055 ~ .117)	.048

또한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수준(Cog), 행동적 수준(Beh), 체험적 수준(Exp)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체험적 수준은 사회적 자아존중감(r=.542, p<.01), 가정적 자아존중감(r=.569, p<.01), 학업적 자아존중감(Aca)(r=.548, p<.01)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측정모형 검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자아존중감의 측정모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χ^2=53.106(df=24, p<.001), χ^2/df=2.213, CFI=.963, TLI=.945, RMSEA=.086, SRMR=.04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 SRMR이 .08 이하일 경우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Hu and Bentler, 1999). 또한 RMSEA는 .086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CFI, TLI, SRMR 등 다른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든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분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Fig. 2] CFA Model.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Fig. 2]와 같이,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하위요인들은 .765 ~ .916,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들은 .645 ~ .758,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은 .782 ~ .867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관측변수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구조모형 분석 및 매개효과 검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Table 4> Structural Path Estimates of the Research Model

Path	B	β	S.E.	C.R.	p
PEA → ERA	.430	.565	.081	5.340	<.001
ERA → SE	.931	.759	.148	6.303	<.001
PEA → SE	.197	.211	.079	2.482	.013

같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정서조절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65, p<.001), 정서조절능력 또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59, p<.001). 또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11, p=.013).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특히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β=.429)가 직접효과(β=.211)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R^2=.802로 나타나,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정서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EA → ERA	.565	-	.565
PEA → SE	.211	.429	.640
ERA → SE	.759	-	.759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5,000회)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BC 신뢰구간은 [.318, .643]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모두 양(+)의 부호를 보여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6). 이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Bootstrapping Results for the Indirect Effect

Path	Indirect Effect	95% BC CI	p
PEA → ERA → SE	.429	[.318, .643]	.006

Ⅳ. 결 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정서조절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조절능력 또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능력이 아동의 정서발달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Kim and Lee(2015)의 연구, 부모의 공감적 양육 경험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다고 설명한 Trumpeter et al.(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Morris et al.(2007)은 가족 맥락이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환경이라고 보았으며, Park and Kim(2012) 및 Cho and Lee(2010)도 부모의 공감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Gross(1998)는 정서조절을 개인이 자신의 정서 경험과 표현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정서조절능력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부정적 정서나 갈등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반응을 조정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안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Lee and Jeon(2020)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 작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더 크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은 자녀의 행동교정이나 학업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공감적 의사소통 훈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즉시 판단하거나 해결하려 하기보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며,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주는 대화방식을 익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기보다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서조절능력 증진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만큼,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은 단순한 칭찬이나 자신감 향상 활동에 머무르기보다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프로그램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단위의 감정 점검, 감정 단어 카드 활용, 갈등 상황 역할극, 감정-생각-행동 기록지 작성, 회복적 대화 연습 등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해 보는 실제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상담실 중심의 개별 프로그램에 한정되기보다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질 때 교육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학교와 가정이 정서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아동에게 감정 인식과 조절 전략을 가르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반응이 평가적이거나 통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는 SEL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보호자와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동일한 언어와 방식으로 자녀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월별 정서교육 주제에 따른 부모 안내자료, 부모-자녀 감정 대화 과제, 가정용 감정일지 등을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배운 정서조절 전략이 가정의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하나의 구조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정에서 내적 조절능력과 부모의 관계적 지원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영향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의 비중이 확대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주목하여, 이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가정-학교 연계 정서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소재 1개 초등학교의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은 부모의 영향과 또래 및 학교생활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전환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해당 발달단계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학교 특성을 다양화한 표집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인 간 시간적 선후관계와 인과적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공감적 태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료에 의존하였으므로 공통방법편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및 교사 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거나 관찰 및 면담자료를 병행하여 연구결과를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더 크게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부모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Cho SH and Lee KN(2010).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elf-Esteem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61~72. https://doi.org/10.6115/khea.2010.48.5.061

Cho YJ(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Empathy Scale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Choi BK and Jeon KY(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Inventory(I).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41~54.

Choi HK, Hong SK, Hwang YU, Shin EG and Park JU(2025).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pecialized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37(6), 1482~1493. https://doi.org/10.13000/JFMSE.2025.12.37.6.1482

Choi HK and Won HH(2026).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Emotional Support,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Planning in High School Students: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nalysi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38(4), 710~720. https://doi.org/10.13000/JFMSE.2026.8.38.4.710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W. H. Freeman.

Davis M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D'Zurilla TJ, Nezu AM and Maydeu-Olivares A(2002). Manual for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Multi-Health Systems.

Gross JJ(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https://doi.org/10.1037/1089-2680.2.3.271

Hu LT and Bentler P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Kang SA(2023).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Focusing on a longitudinal

study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I804:11044-200000682887

Kim MJ and Lee S(2015). The Influences of Parental Empathy o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Play Therapy, 19(3), 1~18.

Kim SY and Kim JS(2011).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cale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4), 1091~1108.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097

Kline R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Guilford Press.

Koruklu N(2015). Personality and Social Problem-Solv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5(2), 481~487.

Lee JK and Jeon GY(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4), 485~502. https://doi.org/10.5934/kjhe.2020.29.4.485

Little TD, Cunningham WA, Shahar G and Widaman KF(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Matsunaga M(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https://doi.org/10.1080/19312450802458935

Morris AS, Silk JS, Steinberg L, Myers SS and Robinson LR(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Orth U and Robins RW(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https://doi.org/10.1177/0963721414547414

Park EJ and Kim JB(2012). The Effect of Parent Empathy on Younger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Younger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lay Therapy, 16(3), 33~49.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ields A and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704_2

Trumpeter NN, Watson PJ, O'Leary BJ and Weathington BL(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1), 51~71. https://doi.org/10.3200/GNTP.169.1.51-71

Yoo YJ(2017). The Effects of Self-Esteem Enhancement Group Counsel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Zimmermann P(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8(1), 83~101. https://doi.org/10.1016/j.jecp.2004.02.002

• Received : 11 August, 2026
• Revised : 24 August, 2026
• Accepted : 31 August, 2026